

비한정 명사구의 의미와 대명사 조용현상

조 경 숙
(호남대학교)

Cho, Kyung-sook. 1998. *The Meaning of Indefinites and Pronominal Anaphora*. *Linguistics*, 6-1, 193-213.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study certain proposals related with the semantic interpretation of indefinites and pronominal anaphora, and to discuss their differences and problems. In formal semantics, indefinites have been traditionally treated as existential quantifiers. However, the quantificational approach of indefinites can not explain anaphoric relations between indefinite NPs and pronouns in the donkey sentences or in the inter-sentential examples. Therefore, in order to explain these anaphoric relations in maintaining the non-referential interpretation of indefinites, two theories are proposed: the E-type Theory and the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The E-type approach considers indefinites as existential quantifiers, and pronouns as definite descriptions. On the other hand, the DRT approach considers both indefinites and pronouns as variables, and explains their anaphoric relations in the 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In spite of these differences, two theories have the same problem: the problem of proportion. (Honam University)

1. 서론

형식의미론에서 비한정 명사구는, 보통 존재 양화사로 취급되어진다. 이는 비한정 명사구가 고유명사와 같은 지시적 표현이 아니라 한정 명사구와 같은 양화적 표현임을 주장한 Russell(1905, 1919)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Strawson(1950, 1952)등의 철학자들은 비한정 명사구가 지시적 표현처럼 해석될 수도 있음에 주목하고, 비한정 명사구를 양화적 표현과 지시적 표현 사이에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위 당나귀 문장(donkey sentence)이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어서 비한정 명사구와 대명사가 보여주는 조용현상은,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Russell식 의미 분석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존재 양화사로 취급되

어 은 비한정 명사구가 대명사 조용현상에 있어서는 지시적 표현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비지시적 해석을 유지하면서, 비한정 명사구-대명사 조용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미 분석이 시도되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E-유형 대명사 이론(E-type Pronoun Theory: 이후 E-유형 이론으로 표기)과 담화 표상 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이후 DRT로 표기)이다. E-유형 이론은 Evans(1977, 1980)와 Cooper(1979)에 의하여 제안된 이론으로서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존재 양화적 해석을 유지하면서 비한정 명사구와 대명사간의 조용현상을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즉 자신을 결속하지 않은 양화 명사구와 조용관계에 있는 E-유형 대명사를, 한정 기술로 대치하여 해석함으로써 비한정 명사구의 예외적인 조용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DRT는 Kamp & Reyle(1993)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서, 비한정 명사구와 대명사를 담화 표상 구조(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이후 DRS로 표기) 내에 담화 지시물(discourse referent)을 도입해주는 변항과 유사한 존재로 취급한다. 즉 비한정 명사구를 존재 양화사로 보지 않고, DRS에 따라 그 DRS의 해석에 흡수되어 해석되는 담화 지시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비한정 명사구에 조용하는 대명사도 단순한 결속 변항으로 보고 이들이 비한정 명사구와 보여주는 조용 관계를 담화 표상 조건(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 condition: 이후 DRS 조건으로 표기)의 접근 가능성 제약(accessibility constraints)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비한정 명사구의 의미 해석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비지시적 해석을 유지하면서 대명사 조용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E-유형 이론과 DRT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 간의 차이와 그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양화적 해석과 지시적 해석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양화적 해석을 유지하면서 비한정 명사구-대명사 조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E-유형 이론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 함축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겠다. 4장에서는 비한정 명사구의 비지시적 의미와 비한정 명사구-대명사간의 조용현상을 DRS를 통해 설명하는 DRT의 분석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들의 문제점을 논의하겠다.

2. 양화적 해석과 지시적 해석

Russell(1905: 41-42, 1919: 55-56)에 의하면 명제에는 단순명제(singular proposition)와 일반명제(general proposition)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단순명제란 어떤 지시적 표현 b 가 술어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명제로서 지시물 b 는 이 명제의 구성요소가 된다. 이에 비해 일반명제는 어떤 특정한 개체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명제로서 그 특정한 대상물이 명제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한정표현 the F 가 술어구와 결합하여 이룬 명제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어떤 특정한 개체에 대한 지시(refer)는 단순명제를 형성하지만 어떤 유일한(unique)한 개체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은 일반명제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Russell(1919: 171)은 비한정 명사구가 한정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일반명제를 형성하는 표현임을 주장하였다. 즉 비한정 표현을 지시(reference)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양화(quantification)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회계감사관이 오늘 방문할 것이라는 전보를 화자가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때 화자가 (1a)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이는 일반명제로서 (1b)와 같이 해석되기 때문이다.

- (1) a. *An auditor is coming to see me today.*
 b. [an x : auditor x] (x is coming to see me today)

따라서 Russell은 'An F is G '라는 비한정 표현의 의미물 (2a) 또는 (2b)와 같은 논리 형식(logical form: 이후 LF로 표기)으로 나타낼 것을 제안하였다.

- (2) a. $(\exists x) (Fx \ \& \ Gx)$.
 b. [an x : Fx](Gx).

한편 Strawson(1950, 1952)의 영향을 받은 많은 철학자들은 비한정 표현이 지시적 표현처럼 기능하는 경우에 주목하고, 비한정 표현이 양화적 해석과 지시적 해석 사이에 중의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화자, 청자 모두 Jones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가 횡령죄를 범한 사람이라

는 점도 알고 있을 때를 가정해보자. 이때 (3)과 같은 문장의 비한정 명사구 *a convicted embezzler*는 구체적인 대상인 Jones를 가리키며 따라서 이 문장은 단순명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 *A convicted embezzler is flirting with your sister.*

비한정 표현의 지시적 용법에 관한 또 다른 예는, 지각할 수 있는 (perceptual) 어떤 대상물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한정 명사구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가령 화자와 청자가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자. 이때 화자가 (4)와 같이 말하면 이때의 비한정 명사구 *a man*은 정원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따라서 이 문장은 단순명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4) *Look! A man is uprooting your turnips.*

이러한 Strawson등의 주장에 대하여 Russell론자들은, 위와 같은 지시적 용법(referential use)의 경우는 화용적 접근으로 설명하고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양화적 해석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비한정 명사구는 지시적 표현에 속하는 이름(name)이나 지시사(demonstratives)등과는 다른 의미 해석상의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시적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특히 지시적 표현이 문장의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문장의 의미 해석은 지시적 표현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대상물을 알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예컨대 지시적 표현을 포함한 아래 문장들에서, 문장 (5a)의 Jones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또는 문장 (5b)의 *that man*이 누구인지를 청자가 모르는 상황이라면, 청자는 화자가 표현하려 하였던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5) a. *Jones is flirting with your sister.*

b. *That man is uprooting your turnips.*

이에 비해 비한정 표현을 포함한 문장들은 지시물을 찾는 이러한 추론

과정 없이도 충분히 그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아래 문장들은 a convicted embezzler나 a man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비한정 명사구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 (6) a. *A convicted embezzler is flirting with your sister.*
 b. *A man is uprooting your turnips.*

그러나 비한정 표현을 양화적 표현으로 본 Russell식의 이러한 의미 해석은 비한정 명사구와 대명사간의 조용현상에서 다시 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대명사 조용현상에 있어서 비한정 명사구는 비지시적 표현인 양화사 보다는 지시적 표현인 고유명사에 가까운 특성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¹ 예컨대 당나귀 문장의 경우를 살펴보자.

- (7) a. *Every farmer who has a donkey beats it*
 b. *Every farmer who met John likes him.*
 c. *Every farmer who has every donkey beats it.*

(7a)에서 관계절 속의 a donkey는 상위절의 대명사 it과 조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7b)와 John과 동일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it과 조용 관계가 불가능한 (7c)의 every donkey와 대조된다.

문장간의 조용현상에서도 비한정 명사구는 일반 양화사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문장 (8a)에서 비한정 명사구 a man과 대명사 he는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

1. 지시적 표현인 고유명사와 비지시적 표현인 양화 명사구가 대명사 조용 현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임은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이들은 관계절 구문, 부사절 구문, 등위절 구문 또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조용 현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아래에서 Mary와 her는 조용 관계가 성립하나 every girl과 her는 그렇지 못하다. 양화 명사구는 양화사 작용역인 해당 절을 넘어선 대명사를 결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 (a) *Every boy that loves Mary will soon find her.*
 (b) *The boy who loves every girl will soon find her.*

유명사를 포함한 문장 (8b)와 동일한 특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조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양화 문장 (8c)와 비교된다.

- (8) a. *A man* walked into the room. *He* fell over.
- b. *John* walked into the room. *He* fell over.
- c. *Every man* walked into the room. *He* fell over.

따라서 Strawson은 비한정 명사구가 대명사 조용관계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한정 명사구를 지시적 표현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앞의 (3)과 같은 환경에서 발화된 문장 (9a)와, (4)와 같은 환경에서 발화된 문장 (9b)의 경우를 살펴보자.

- (9) a. *A convicted embezzler* is flirting with your sister; *he's* drunk.
- b. Look! *A man* is uprooting your turnips; *he* looks hungry.

위의 예문에서 대명사 he와 선행하는 비한정 명사구간에는 조용 관계가 성립한다. Strawson에 의하면 이러한 조용 관계는, 대명사가 지시적 표현이며, 대명사가 지시물을 선택(pick up)해 오는 선행사인 비한정 명사구도 지시적 표현이라고 볼 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명사 he는 a convicted embezzler나 a man이 가리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간에 그 대상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Russell의 주장대로 비한정 명사구가 양화적 표현이라면 이들은 지시물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대명사도 지시물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명사가 지시적 표현이라는 Strawson의 주장은 몇몇 비결속 대명사들이 한정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Cooper, 1979, Parsons, 1978). 예컨대 문장 (10)에서 비한정 명사구 a convicted embezzler와 조용 관계를 보이는 대명사 he는 한정 표현 the convicted embezzler that is flirting with your sister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한정 표현들은 지시적 표현이 아니라 양화적 표현으로 취급된다.

- (10) *A convicted embezzler* is flirting with your sister; *the convicted embezzler* that is flirting with your sister is drunk.

또한 대명사가 비한정 명사구로부터 지시물을 선택(pick up)한다고 하는 Strawson의 주장에 대하여, Lewis(1979: 243)는 조용 대명사의 지시적 해석을 화용적 돌출(salience)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문장 (11)에서 대명사 he는 선행사인 비한정 명사구 a man의 내용(content)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지각환경(perceptual environment)에 기반하여 특정 개체를 선택한다고 보는 것이다.

(11) Look! A man is uprooting your turnips; he looks hungry.

즉 비한정 명사구는 양화적 표현으로서 지시적 표현이 될 수 없지만, 이에 조용하는 대명사가 특정한 개체를 지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맥 돌출을 야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비한정 명사구를 지시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비지시적 해석을 유지하면서 대명사와의 예외적 조용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의미 해석이 시도되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E-유형적 접근과 DRT적 접근을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E-유형적 접근

3.1. E-유형 이론과 유일성 함축(Uniqueness Implication)

Evans(1977, 1980)와 Cooper(1979)는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양화적 해석을 유지하면서 비결속 변항인 대명사와 비한정 명사구간의 조용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E-유형 이론을 제안하였다.² E-유형 이론은 다음과 같은 개

2.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존재 양화적 해석을 유지하면서 비한정 명사구와 대명사간의 비양화적인 조용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는 Geach(1962)의 결속 변항 분석이 있다. Geach는 문장 (13a)의 대명사 he를 양화 표현 a man에 결속된 변항으로 취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장 (13a)의 LF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an x: man x] (walked-into-the-room x & fell-over x)

그러나 Evans(1977)는 이러한 Geach의 분석이 다른 양화사의 경우에는 적용될

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Heim, 1990: 129 참조).

(12) a. 비한정 명사구는 존재 양화사이다.

b. 조용 대명사는 의미적으로 불 때 한정 기술(definite description)과 동일하다.

즉 E-유형 이론에 의하면, 대명사 P가 P를 통사적 구성 성분 통어(c-command) 하지 않는 양화 명사구와 조용 관계에 있을 경우 이 때의 대명사 P는 한정 기술로 해석된다. 이는 대명사의 내용(content)이 선행사의 내용과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컨대 문장 (13a)의 대명사는 단수 한정 기술인 *the man who walked into the room*으로, 문장 (13b)의 대명사는 복수 한정 기술인 *the men who walked into the room*으로 각각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13) a. *A man* walked into the room. *He* fell over.

b. *Some man* walked into the room. *They* fell over.

따라서 E-유형 이론에 의한 대명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 될 수 있다(Ludlow & Neale, 1991: 195).

(14) (P) If x is a pronoun that is anaphoric on, but not c-commanded by a quantifier ' $[Dx: Fx]$ ' that occurs in an antecedent clause ' $[Dx: Fx](Gx)$ ', then x is interpreted as ' $[the\ x: Fx \ \& \ Gx]$ '.

그리고 위 일반화에 있어서의 ' $[the\ x: Fx \ \& \ Gx]$ '는, 한정기술에 대한 Russell식의 의미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진리 조건으로 구체화된다.³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아래의 LF는 문장 (13b)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some x : man x] (walked-into-the-room x & fell-over x)

3. 한편 Cooper(1979)에 의한 E-유형 대명사의 LF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여기에서 R 은 관계를 표현하는 변항인데 그것의 진리조건적 해석은 지시물이 문맥 돌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Heim, 1982: 84 참조).

$\lambda P \exists x [\forall y [R(xI, \dots, x\ n, y) \langle \text{---} \rangle x = y] \ \& \ P(x)]$.

- (15) If F is singular then '[the x : $Fx \ \& \ Gx$]' is true iff every F is G and there is exactly one F .
 = where F is singular '[the x : $Fx \ \& \ Gx$]' is the restricted quantifier rendering of ' $(\exists x)(Fx \ \& \ (\forall y)(Fy \supset y = x) \ \& \ Gx)$ '

E-유형 분석은 위의 진리 조건이 보여 주듯이, 한정 기술에 대한 Russell식의 의미 해석과 마찬가지로 지시물이 하나(exactly one)라고 하는 유일성 함축(unicqueness implication)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E-유형 분석은 단순 조건문(bare conditional)이나 당나귀 문장의 경우에 있어서 부적절한 유일성 함축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부적절한 유일성 함축을 갖는 경우로서 먼저 단순 조건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단순 조건문이란 if절을 제약하는 다른 표면적인 작용소가 없는 조건문으로서, 이는 필수 작용소(necessity operator)를 포함한 구문으로 해석되거나 또는 양화 부사인 generally나 always를 포함하는 구문으로 해석된다. 단순 조건문의 종류는 일회성(one-case) 조건문과 다회성(multi-case) 조건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Kadmon, 1987: 265 참조).

이중 (16)과 같은 일회성 조건문에 대한 고전적인 E-유형 분석은 부적절한 유일성 함축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문장 (16)은 (17)을 만족시키면 진이 되는 문장으로서, 대명사 he는 선행절의 유일한 개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Kadmon, 1987: 228 참조).

- (16) If (it is true that) a man walked in, then (it must be true that) he is still in here.
 (17) For all worlds w such that some man walked in in w , the unique man that walked in in w is still in here in w .

그러나 (18)와 같은 다회성 조건문에 대한 고전적인 E-유형 분석은 부적절한 유일성 함축의 문제점을 가진다(Heim, 1982). 예컨대 문장 (18)를 고전적인 E-유형 이론에 따라 해석하면, 이는 '유일한' 어떤 사람이 주어진 세계와 시각에 아테네에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문장의 실제 의미는 '아테네에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로우즈 섬에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다. 이때의 '어떤 한 사람'이란 유일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성 함축은 부적절한 것이 된다.

(18) If *a man* is in Athens, *he* is not in Rhodes.

이는 다회성 조건문에 있어서의 비한정 명사구와 조용 대명사에 대한 고전적인 E-유형 분석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관계절 당나귀 문장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Barker(1997: 196)에 의하면 문장 (19)의 LF는 (20a)와 같이 표기될 수 있다. LF (20a)를 Evans의 E-유형 대명사에 대한 일반화 (14)에 대비시켜 보면, 양화명사구 '[Dx: Fx]'는 [a y: donkey (y)]로, 대명사의 선행사 '[Dx: Fx](Gx)'는 [a y: donkey (y)] (bought (x, y))로, 그리고 대명사 '[the x: Fx & Gx]'는 [the y: donkey (y) & bought (x, y)]로 각각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E-유형 분석에 따른 LF (20a)는 (20b)와 같은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9) Every farmer who bought *a donkey* vaccinated *it*.

(20) a. [every x: farmer(x) & [a y: donkey (y)] (bought (x, y))
[the y: donkey (y) & bought (x, y)] (vaccinated (x, y))

b. Every farmer who bought a donkey, vaccinated the donkey that he bought.

대명사 *it*을 *the y*라고 하는 한정기술로 대체시키는 이러한 의미해석은 각 농부들이 오로지 한 마리의 당나귀만을 샀다고 하는 유일성 함축을 갖게 된다. 그러나 문장 (19)는 농부가 여러 마리의 당나귀를 샀을 경우에도 이들을 모두 예방 접종 시켰으면 진이 될 수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당나귀 문장에 대한 고전적 E-유형 분석도 유일성 함축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E-유형적 대안

고전적인 E-유형 분석이 보여주는 부적절한 유일성 함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Ludlow &

Neale(1991)의 단수-복수 비구별 기술(Numberless Descriptions), 둘째 Berman(1987)과 Heim(1990)의 암시적 상황 양화사(Implicit Situation Quantifier)접근이 그것이다.⁴

먼저 Ludlow & Neale(1991: 198)는 E-유형 분석을 옹호하면서 유일성 함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수-복수 비구별 기술을 제안하였다. 단수-복수 비구별 기술이란 수량적인 의미 함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양화 명사구, 즉 every donkey, each donkey, some donkey, a donkey 등에 조용하는 E-유형 대명사를 단수 기술이나 복수 기술이 아닌, 의미적으로 불 때 수량-중립적인 기술로 대체시켜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당나귀 문장 (19)에 있어서 비한정 명사구에 조용하는 대명사는 단수 한정 기술이나 복수 한정 기술이 아닌, 수에 대한 의미적 함축을 하지 않는 (21)과 같은 기술로 표현될 수 있다.

(19) Every farmer who bought *a donkey* vaccinated *it*.

(21) Every farmer who bought a donkey vaccinated the donkey or donkeys he bought.

또한 Barker (1997:196)는 명사구 *x is fatter than George*에 대한 단수-복수 비구별 기술을 *whoever is fatter than George*로 보고 이를 *wh_e x: Fx*로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컨대 다음 문장 (22)는 (23)과 같은 LF로 표현될 수 있고 이는 (24)로 의미 해석된다.

(22) If *a girl* is brought up in **Australia**, *she* learns to swim early.

(23) If [an *x*: girl *x*] (brought up in Australia *x*), then [wh_e *x*: girl *x* & brought up in Australia *x*] (learns to swim early *x*)

(24) If a girl is brought up in Australia, whatever girl who is brought

4. 또 다른 방법은 Parsons(1978)와 Cooper(1979)가 제안했듯이 유일성 함축을 당나귀 문장의 특질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당나귀 문장은 유일성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Every man who has *a daughter* thinks *she* is the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그러나 이는 의미론과 화용론 사이의 구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문제로서 그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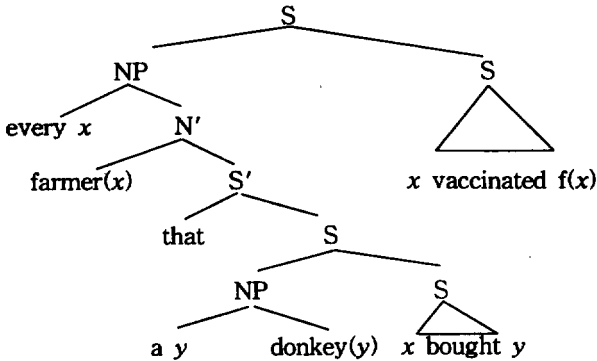
up in Australia learns to swim early.

이때 단수 복수 비구별 기술 *wh* *x*는 부적절한 유일성 함축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으므로 LF (23)은 문장 (22)에 대한 올바른 진리 조건을 제공한다. 그리고 비한정 명사구에 조용하는 대명사를 단수 한정 기술로 대치할 것인지, 아니면 단수 복수 비구별 기술로 대치할 것인지는 문맥적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부적절한 유일성 함축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문장에 암시적 상황 양화사(implicit situation quantifier)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이 이론은 Berman(1987)에 의해서 처음 시도되었고 Heim(1990: 145-149)에 의해 E-유형 분석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먼저 Heim(1990: 132)은 당나귀 문장 (19)를 대략 (25)와 같은 LF로 표시한다.

(25)



위의 (25)에서 대명사 *it*은 결속 변항 *y*로 표시될 수 없고, 자유 함수 변항 (free function variable) *f*를 결속 개체 변항(bound individual variable) *x*에 결합시킨 형태인 *f(x)*로 표시된다. 이때 문장의 의미는 함수 *f*가 무엇을 지시(refer to)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f*는 아래 (26)과 같이 최소 상황 *s*을 논항(argument)으로 취하여 어떤 개체를 그 함수값으로 할당하는 문맥적 돌출적인 함수이다.

- (26) $f: \langle x, s \rangle : S$ is a minimal situation in which x is a farmer
 and bought a y $\text{--->} A$
 $\langle x, s \rangle \text{--->}$ the unique donkey that x bought in s .

다시 말하여 함수 f 는 상황에서 농부로 가는 부분 함수로서, 정의역 안의 각 상황에 대하여 그 상황에서 농부가 산 유일한 당나귀를 할당하는 함수이다. 즉 이 함수의 정의역은 유일한 당나귀가 존재하는 최소 상황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성 함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나귀 문장 (19)의 진리조건은 암시적 상황 변항에 양화작용이 적용되는 (27)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 (27) For every minimal situation s in which there is a donkey bought by a farmer, there is an extended situation s^* which is the vaccination of the unique donkey in s by the unique farmer in s .
 (Barker, 1997: 200)

이때 양화사 every가 적용되는 최소 상황(minimal situation) s 는 한 농부가 한 마리의 당나귀를 사는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확장된 상황(extended situation) s^* 은 s 를 그 부분으로 갖는 상황을 가리킨다. 따라서 문장 (19)의 LF는 (28)과 같이 표시된다.

- (28) [every $x, s1$ [farmer($s1$)(x) that [[a y donkey ($s1$)(y)] [x bought ($s1$) y]]]] $s2$ [x vaccinated ($s2$) $f(x, s1)$]]

이러한 상황 기반적 접근은 농부가 산 당나귀가 여러 마리일 경우에도 유일성 함축을 갖는 E-유형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컨대 어떤 농부가 99마리의 당나귀를 샀다면 농부-당나귀로 이루어진 최소 상황은 당나귀의 숫자 만큼인 99 상황이 될 것이며, 각 농부가 산 당나귀는 각 최소 상황에서 유일한 당나귀이기 때문이다.

4. DRT적 접근

E-유형 분석은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양화적 해석을 유지하면서 이와 조용관계를 보이는 대명사의 의미를 한정적 기술로 설명하려는 방법이었다. 이에 비해 Kamp & Reyle(1993)에 의해 제안된 DRT는 당나귀 문장이나 문장의 경계를 벗어난 비한정 명사구-대명사간의 조용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 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Kamp & Reyle, 1990: 66-75 참조).

- (29) a. 비한정 명사구를 양화표현, 특히 존재 양화 표현으로 보지 않는다.
 b. 비한정 명사구와 조용대명사를 모두 보통의 결속 변항으로 본다.

즉 DRT에서 비한정 명사구는 고유명사나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담화 지시물을 DRS에 도입해주는 변항과 유사한 존재로 취급된다. 예컨대 문장 (30)의 DRS (31)에서, 비한정 명사구 a dog는 새로운 담화 지시물 x 와 이 담화 지시물에 대한 조건인 $\text{dog}(x)$ 로 표시된다. 이때 비한정 명사구의 담화 지시물은 해당 DRS상에 도입되는데 비하여, 지시적 표현인 고유명사는 그 지시물이 이미 알려진 대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항상 최상위 DRS로 도입되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DRS 조건인 $\text{dog}(x)$ 는 술어로 취급되는 보통 명사 dog를 만족시키는 개체, 즉 dog이 가리키는 종류(kind)에 속하는 개체가 있을 때 진이 됨을 표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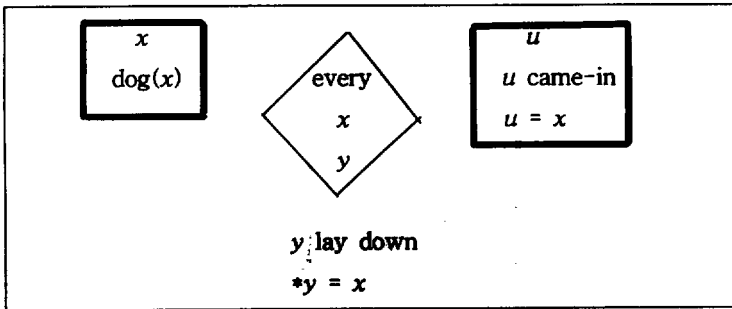
(30) *A dog came in. It lay down.*

- (31)
- | | |
|----------------------|-----|
| x | u |
| $\text{dog}(x)$ | |
| $\text{came-in}(x)$ | |
| $u \text{ lay down}$ | |
| $u = x$ | |

위의 DRS에서 비한정 명사구 *a dog*와 대명사 *it* 간의 조용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 간의 조용관계는 DRS 조건인 등식 $u = x$ 로 표시되었는데 이는 주어진 담화 세계(universe of discourse)에서 두 담화 지시물 변항에 동일한 개체를 할당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편 DRT에서 전칭 양화문 *every a β*는, α 로 표현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β 로 표현된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조건문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전칭 양화문 *every a β*는 α 와 β 각각에 해당하는 하위 DRS를 설정하고 이들 사이에 *every*라는 양화 작용소를 설정하는 복식조건(duplex condition)으로 표시된다. 예컨대 문장 (32)은 (33)의 DRS로 표시된다(Kamp & Reyle, 1990: 170 참조).

- (32) *Every dog came in. It lay down.*
 (33)



위의 DRS를 살펴보면 양화 명사구 *every dog*에 대한 담화 지시물 및 DRS 조건이, 고유명사나 비한정 명사구의 경우와는 달리, 복식 구조내의 하위 DRS에 도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DRS에서는 선행 명사구 *every dog*과 대명사 *it*간의 조용관계를 표시하는 DRS 조건 $y = x$ 가 입증되지 못한다. 담화 지시물과 DRS 조건 사이에 적용되는 접근 가능성 제약 때문이다. 접근 가능성 제약이란, 담화 지시물과 DRS조건 사이에 적용되는 의미 해석상의 제약으로서 종속된 DRS 조건이 상위 DRS에 속하는 담화 지시물에 접근 할 수 없으며, 양화사나 기타 이유로 사각형 쪼개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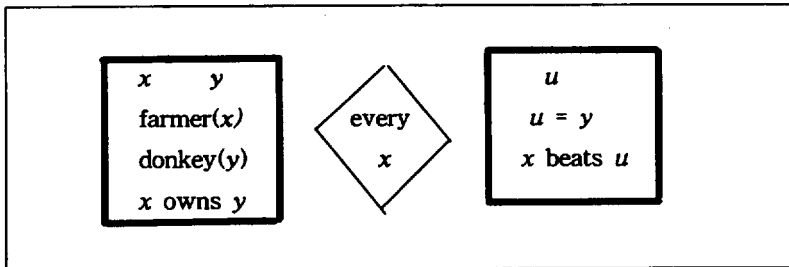
일어난 경우에도, 오른쪽 사각형 내의 DRS조건이 왼쪽 사각형 내의 담화 지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이다.

즉 위의 DRS에서 오른쪽 사각형 안에 있는 DRS 조건 $y = x$ 는 왼쪽 사각형 내의 담화 지시물 x 로 접근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화 명사구 every dog와 대명사 it 간의 조용관계도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다. 양화 명사구에 대한 이러한 DRT의 분석은 양화 명사구가 고유명사나 비한정 명사구와는 달리, 문장의 경계를 넘어선 대명사와 조용할 수 없음을 설명해 준다.

나아가 DRT는 양화 명사구와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당나귀 문장에 대한 의미 해석을 다음과 같이 시도하고 있다. DRT는 먼저 당나귀 문장 (34)를 DRS (35)로 분석한다(Kamp & Reyle, 1990: 167-168 참조).

(34)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it.

(35)



위의 DRS를 살펴보면 당나귀 문장 (34)는 전칭 양화문 every $\alpha \beta$ 와 마찬가지로 복식 구조로 표현되었다. α 에 해당하는 왼쪽 사각형안에는 farmer who owns a donkey에 대한 담화 지시물과 DRS 조건이 표시되며, β 에 해당하는 오른쪽 사각형에는 beats it에 대한 담화 지시물과 DRS 조건이 표시되었다. 이때 대명사 it의 담화 지시물 변항 u 와 비한정 명사구 a donkey의 담화 지시물 y 가 동일한 개체로 사상됨을 보여주는 DRS조건 $u = y$ 가 의미 해석 과정에서 입증될 수 있다면, a donkey와 it간의 조용 관

제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DRS (35)의 DRS 조건 $u = y$ 는 오른쪽 사각형 안에 있고 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담화 지시물 y 는 왼쪽 사각형 속에 있다. 따라서 DRS 조건 $u = y$ 는 담화 지시물 y 에 접근 가능하게 되고, 비한정 명사구-대명사 간의 조용관계가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Kamp & Reyle, 1990: 149 참조).

또한 문장 (34)가 '모든 농부는 자기가 소유하는 당나귀를 모두 때린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과 같이, 당나귀 문장의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전칭적인 의미 해석도 DRS 내의 복식 조건 입증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다. 예컨대 위 DRS의 복식조건은 왼쪽 사각형을 입증하는 모든 함수가 오른쪽 사각형을 입증하는 모든 확장된 함수를 입증할 때 만족된다. 이는 왼쪽 사각형 내에 들어 있는 담화 지시물 x 나 y 에 대한 개체 사상의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 되므로, x 나 y 가 모두 전칭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당나귀 문장에 대한 DRT의 이러한 분석은 E-유형 이론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 함축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DRT는 비한정 명사구와 조용 대명사를 보통의 결속 변항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즉 DRS의 오른쪽 사각형 속의 it 에 할당될 개체는 왼쪽 사각형 내의 농부와 그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당나귀라는 두 개체간의 함수 관계에 의존하며, 양화사 every가 두 개체들로 이루어진 쌍에 적용되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5. 결론

이상에서 E-유형 이론과 DRT에 의한 비한정 명사구의 의미와 대명사 조용 관계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았다. E-유형적 분석은 비한정 명사구에 대한 존재 양화적 해석을 유지하고 대명사를 이와 연관된 한정 표현으로 봄으로써 비한정 명사구의 예외적인 조용관계를 설명하려 하였다. 이에 비해 DRT는 비한정 명사구와 대명사를 단순한 담화 지시물로 보고 이들의 의미와 조용 현상을 DRS라는 구조를 통하여 설명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E-유형 분석이나, DRT적 분석은 결국 서술화(predication) 과정에서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즉 양화 현상이 농부와 그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당나귀로 이루어진 쌍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분석 방법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례 문제

(proportion problem)를 갖는다. 즉 전칭 양화사가 아닌 다른 종류의 양화사를 포함한 문장에 있어서, 비대칭적 해석(asymmetric reading)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대칭적 해석(symmetric reading)을 제공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⁵

예컨대 양화부사 usually를 포함하고 있는 다회성 조건문 (36)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문장의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당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농부 중 대다수의 농부가 부자라는 것이다.

(36) If a farmer owns a donkey, he is usually rich.

따라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가 되어야 한다: 전부 100명의 농부가 있는데, 이중 99명의 농부들은 각각 한 마리의 당나귀를 가지고 있으며 가난하다. 한편 100번째 농부는 200마리의 당나귀를 가지고 있고 그는 부자이다.

그러나 상황에 기반한 E-유형적 접근에 따르면 100번째의 농부가 유일한 당나귀를 갖는 최소 상황은, 당나귀의 숫자 만큼인 200개의 경우가 된다. 그렇게 되면 99명의 농부가 각각 형성하는 최소 상황인 99개의 경우보다 더 많기 때문에 usually의 양화적 의미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 진이 되는 잘못된 해석을 낳게 된다.

DRT의 경우에도 E-유형적 접근과 마찬가지로의 비례문제를 야기한다. DRT가 입증하여야 할 개체 사상의 경우는 농부와 그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당나귀라는 두 개체로 이루어진 쌍(pair)들이다. 따라서 전체 개체 쌍 299개중에서 200개의 개체 쌍이 술부를 만족시키므로 (부자이므로), 전체 문장의 진리치가 진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의미해석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Berman(1987)은 양화 작용이 적용되는 상황을 문맥 의존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장의 진리 조건은, 상황이라는 정의 역(domain)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장 (36)의 비대칭적 해석은, 한 농부가 200마리의 당나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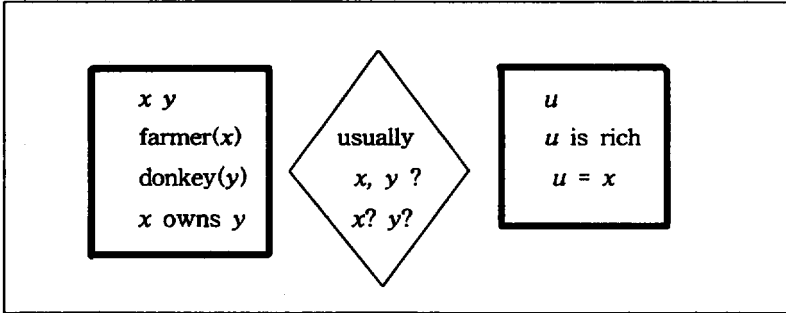
5. Kadmon(1987)은 양화사가 개체 쌍에 적용되는 경우를 대칭적 해석이라 하고, 이에 비해 양화사가 개별적인 개체에 적용되는 경우는 비대칭적 해석이라 명명하였다.

를 소유하는 상황을 하나의 최소 상황으로 취급할 경우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100개의 최소 상황 중에서 99개의 최소 상황이 위가 되므로 전체 문장 (36)이 위가 되는 올바른 의미 해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Berman은 이러한 정의역을 '거친 정의역(coarse-grained domain)'이라 하고, 소유한 당나귀의 숫자만큼의 최소 상황을 설정하는 경우인 '정교한 정의역(fine-grained domain)'과 구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Berman의 제안은 실제 문장에서 특정 해석이 선호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Kadmon(1987)은 문장 (36)의 비례 문제를 DRS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중의성에 의존하여 설명하려 한다. 즉 선행절에 두 개의 비한정 명사구를 갖는 다회성 조건문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해석을 허용한다고 본다. 첫째 해석은 양화 부사가 개체 쌍에 적용되는 경우이며, 둘째 해석은 양화부사가 처음 나오는 비한정 명사구에만 적용되는 경우이고, 셋째 해석은 양화부사가 두 번째 나오는 비한정 명사구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를 DRS (37)에서 설명해 보면, 복식 구조의 가운데에 있는 양화 부사 usually가 어떠한 담화 지시물에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된다. 먼저 첫째 해석은 양화 부사 usually가 담화 지시물 $x y$ 에 적용되어, 이를 만족시키는 당나귀-농부의 쌍이 다수이면 전체 문장이 진이 되는 경우이다. 둘째 해석은 담화 지시물 x 에 양화사가 적용된 경우로 이때에는 농부의 다수가 양화사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전체 문장이 진이 된다. 셋째 해석은 담화 지시물 y 에 양화사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당나귀의 다수가 부과된 조건을 만족시키면 전체 문장이 진이 되는 경우이다.

(37)



이러한 Kadmon의 제안은, 화용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Berman의 제안에 비해 보다 더 통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Berman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Kadmon의 제안도 특정 해석이 선호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즉 Berman식 접근은 최소 상황에 관한 정의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문맥적인 요소와 화용론적 기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형식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Kadmon식 접근은 각 의미 해석들이 단일한 통사구조와 어떻게 조직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를 설명하여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Barker, S. J. 1997. "E-type Pronouns, DRT, Dynamic Semantics and the Quantifier/Variable-Binding Model", *Linguistics and Philosophy* 20.
- Berman, S. 1987. "Situation Based Semantics for Adverbs of Quantification", *UMass.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2.
- Cooper, R. 1979. "The Interpretations of Pronouns", in F. Heny and H. Schnelle (eds.), *Syntax and Semantics* 10. New York: Academic Press.
- Evans. G. 1977. "Pronouns, Quantifiers and Relative Clauses (1)",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7. Cited from the reprint in G. Evans: 1985, *Collected Papers*, Oxford: Clarendon Press.

- Evans, G. 1980. "Pronouns", *Linguistic Inquiry* 11.
- Geach, P. 1962. *Reference and Generality*. Ithaca: Cornell.
-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ublished, New York: Garland Press, 1987.
- Heim, I. 1990. "E-type Pronouns and Donkey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 Kadmon, N. 1987. *On Unique and Non-unique Reference and Asymmetric Quantification*. Ph.D. dis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Kamp, H. & U. Reyle. 1993. *From Discourse to Logic*. Dordrecht: Kluwer.
- Lewis, D. 1979. "Scorekeeping in a Language Game",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8.
- Ludlow, P. & P. Neale. 1991. "Indefinite Descriptions: In Defense of Russell". *Linguistics and Philosophy* 14.
- Parsons, T. 1978. "Pronouns as Paraphrases", ms.,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14.
- Russell, B. 1919.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Philosoph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Strawson, P. F. 1950. "On Referring", *Mind* 59. reprinted in Strawson's *Logico-Linguistic Papers*. London: Methuen, 1971.
- Strawson, P. F. 1952. *Introduction to Logical Theory*, London: Methuen.

조 경 숙

506-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9-1

호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